

# TAEGEUKGI: The Korean Flag

## 20세기 초 서양인들이 그린 태극기

Western Depictions of the Flag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엽서 12종 | 판형: 148x105 mm | 가격: 낱장 1,000원/세트(12장) 10,000원  
발행일: 2013년 11월 15일 | 출판사: 서울셀렉션(Seoul Selection)

### 서양인들이 제작한 희귀 태극기 그림 12점을 엽서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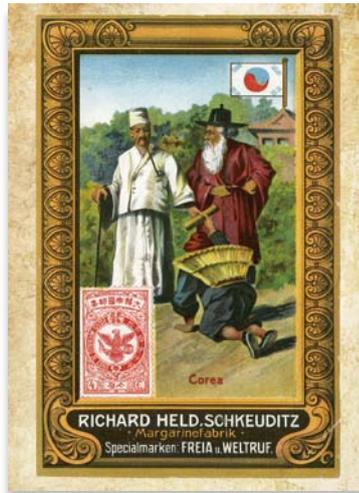
— 광화문과 해태상을 배경으로 한 태극기, 흥선대원군 초상이 함께 그려진 태극기, 양반의 얼굴 초상과 나란히 배치된 태극 문양 등 미공개 자료 수록

- ▲ 대한제국 전후와 일제강점기에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서양 각국에서 제작된 태극기 이미지 수록
- ▲ 광고카드, 호텔 수하물표 등에서 수집한 이미지여서 대부분 일반에 미공개
- ▲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통해 한국(KOREA)과 한국인의 존재가 당시 전 세계에 알려졌음을 시사
- ▲ 식민지 치하 한국인을 격려하는 미 정부 제작 태극기 이미지 수록

대한제국 전후와 일제강점기에 세계 각국에서 제작되어 한국과 한국인의 존재를 해외에 알린 희귀한 태극기 이미지 12점이 엽서 세트로 제작됐다. 엽서 세트의 이름은 ‘20세기 초 서양인들이 그린 태극기’(Taegeukgi: the Korean Flag—Western Depictions of the Flag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로, 한국문화에 관한 영문 도서 출판사인 서울셀렉션이 국내외 태극기 이미지 수집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

엽서에 담긴 이미지들은 1882년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발행한 최초의 태극기부터 고종 황제의 어진이 그려진 태극기, 흥선 대원군이 그려진 태극기, 광화문과 해태상을 배경으로 한 태극기, 일반 양반의 얼굴과 서울 중심가의 모습을 그린 것 등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다양하게 전해주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미지는 주로 상업적인 광고카드나 호텔 수하물표, 화보집 등에 수록된 것이어서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것과는 출처 면에서도 확연히 차별화된다.

태극기 그림의 국가별 출처 또한 미국(3점), 독일(4점), 프랑스(2점), 페루(1점), 네덜란드(1점), 오스트레일리아(1점)로 다양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조선과 대한제국이 한국(Korea)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대륙과 국가에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엿보게 해준다.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전이 9점, 일제강점기 3점으로 선정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에도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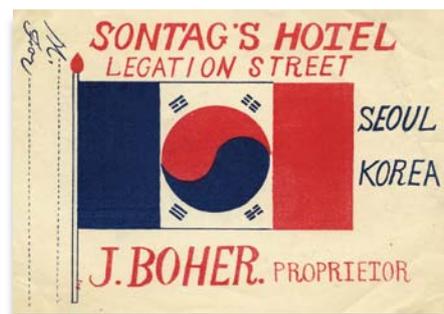


태극기를 배경으로 황룡포를 입은 고종 황제 그림은 1900년경 미국의 한 시가회사가 제작한 광고카드인 ‘세계의 통치자들’(Rulers of the World)에 수록된 것으로, 고종 황제의 휘(이름)인 ‘이휘’와 함께 ‘한국의 황제’(Emperor of Korea)라고 쓰여져 있다.

역시 1900년경 네덜란드 식품회사가 발행한 광고카드에는 지게와 유사한 형태의 들통을 등에 진 우편 배달부가 장죽을 입에 문 수취인에게 두루마리 편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황제의 휘장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과 ‘대한제국우표’라는 글자가 새겨진 당시 우표가 함께 인쇄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 수하물표에 삽입된 태극기는 1909년경 당시 프랑스인 호텔 경영자 보에르의 이름과 함께 프랑스 국기의 가운데 부분에 태극기를 배치한 형태로 되어 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에 미 정부가





태극기를 소재로 한 우표와 이 우표의 발행을 기념하는 편지봉투를 함께 발행했는데, 이 편지봉투에는 태극기와 쇠사슬에 묶인 양손이 그려져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신음하던 한민족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국에 경의를”(Salute to Korea), “세계 만민이 속박에서 벗어나기를…”(That All People May Be Free From Bondage)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제작사인 서울셀렉션은 앞으로 국내외 태극기 이미지 수집가들이 보유한 수백여 점의 태극기 관련 자료를 모아 태극기 자료집 발간과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12종 엽서 각각의 이미지는 서울셀렉션 온라인 북샵

([http://www.seoulselection.com/bookstore/default/product\\_list.php?part\\_idx=269&search\\_item=3](http://www.seoulselection.com/bookstore/default/product_list.php?part_idx=269&search_item=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34-9567, [planner@seoulselection.com](mailto:planner@seoulselection.com) (담당: 김유진)  
 구매 문의 02-734-9565, [bookshop@seoulselection.com](mailto:bookshop@seoulselection.com) (담당: 유미래)